

코발트파우더, 국제가격 45.9% 급등

조달청, 비축물량 7000kg 긴급 방출 ... 중소기업 원자재난 해소 대책

조달청이 특수강 첨가제인 코발트 파우더의 국제가격 급등에 따라 비축물량 7000kg을 긴급 방출한다고 6월 15일 밝혔다.

코발트 피의 국제가격이 2003년 12월 kg당 37달러에서 2004년 6월 현재 54달러로 급등하면서 국내 중소 제조기업들이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방출가격은 kg당 9만2000원으로 수입가격(10만6000원)에 비해 15% 가량 낮다.

조달청은 “관련 중소기업의 원자재 확보난을 덜기위해 비축물량 가운데 일부를 긴급 방출키로 했으며 제조 원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발트 파우더는 은회색을 띠는 희귀 금속으로 특수강의 내열·내식 강도 향상을 위한 첨가제로 사용된다.

<화학저널 2004/06/16>